

조선

ME-GI 탑재 LNG선 옵션 수주, 가격도 소폭 상승

2013. 7. 26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대우조선해양, Teekay로부터 ME-GI 탑재되는 LNG선 옵션 2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은 캐나다 선사 Teekay로부터 LNG선 2척 옵션 수주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선박은 ME-GI엔진이 탑재된다. 옵션 금액은 본선 가격보다 소폭 상승했다. 공시요건 변경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수주 건에 대해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E-GI엔진이 탑재되는 LNG선 수주는 과거 삼성중공업이 LNG선에 DFDE엔진을 최초로 탑재하게 되면서 일본 조선업계의 LNG선 점유율이 하락했던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LNG선 추진엔진인 DFDE와 ME-GI의 차이점은 DFDE는 LNG 혹은 병커유 한가지만 선택해 추진하게 되지만 ME-GI는 LNG와 병커유를 비율에 따라 혼합해 추진 연료로 사용한다. 또한 ME-GI는 LNG뿐 아니라 LPG도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 연료 소모량을 비교하면 Moss형 LNG선의 추진 기관은 스팀 터빈으로 1일 160톤의 병커유를 소모하는데 비해 DFDE는 1일 123톤, ME-GI엔진은 95톤 이하를 소모한다.

ME-GI 엔진 탑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FGS 탑재방식을 적용하면 재액화 설비가 필요 없어 ME-GI엔진가격은 DFDE보다 20%가량 낮다. Teekay는 Capex와 Operation cost에서 유리한 FGS탑재 방식의 ME-GI엔진이 탑재되는 LNG선을 최초로 발주한 것이다.

ME-GI 탑재되는 LNG선은 올해 가을 이후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조선업 전망은 상선분야를 주목해야 하며, '연비'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중국 조선업은 점차 붕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주실적 보다 인도실적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향후 수주전망에서 Reference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수주목표 달성 여부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가 상승추세를 확인한 옵션 계약 가격 상승

올해 이후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주한 선박 가격은 MR탱커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가 상승은 다른 선종, 대형선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옵션 계약금액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선가 상승추세를 확인해주고 있다. 실체를 보면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주하는 선박 가격만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선가 Discount를 받고 있으며 선수금 비율은 2% 미만에 불과하다. 신조선가는 상승하지만 Eco-ship 인도량이 늘어날 수록 중고선 가격은 하락폭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철판가격은 하락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신조선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연비'가 선가 상승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 조선업에게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업이 연간 인도하는 선박의 척수는 400척 수준이지만 전세계 주요 상선 선복량은 약 3만5천척 수준이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연비개선에 적합한 새로운 선형개발을 통해 중국, 일본과 연비경쟁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상선 신조선가는 한국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며 가장 강력한 조선업 주가 상승동력이 될 것이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